

5가지 전도현장의 모델을 보여준 사도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여호수아 6:23-25, 요한이서 1:1-2

정윤돈 목사님

* 수6:23-25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공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 요이1:1-2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생 라합을 원어로 보면 그냥 기생이 아니라 창녀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다. 아마 유추해 보건데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술집에 왕래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생으로 산다는 게 힘들지만 아마 기생 라합은 이 속에서 인생의 답과 진리를 찾았을 것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라합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발견했다. 이스라엘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다. 우리에게 많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답을 얻었다. 우리 현장에도 몇 마디 듣고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저는 만약 제가 오래된 불교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오직 예수 했을 것 같다. 돈, 공부, 정치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답을 찾았을 것 같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 밖에 없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고민을 해보셨는가.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결론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다. 지금의 문제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려 하면 내 생각이 전부 달라진다. 갈등하고 평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그게 정말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인가?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면서 증명했듯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

은 내 문제, 내 어려움을 생각한다. 기생 라합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려울 때 참 진리를 탐구하며 가족을 생각하고 구원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가도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시기 바란다. 지금도 현장에는 이러한 라합과 같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겠나. 내가 먼저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에게 관심 있을 때 주신다.

요한이서에 나오는 한 여인은 가정과 가문을 미션함과 지교회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다락방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데에 쉬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팀사역을 했다. 이런 사람과 팀이 되면 모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게 미션함이다. 직장에서 하면 전문사역이다. 지역마다 하면 지교회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보내며 부녀에게 보낸 13절의 편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요한이서에는 사도행전의 실천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요한이서는 대단한 전도자가 한 개인, 부녀에게 보낸 편지다. 이 부녀가 살아야 이 시대가 전부 살기 때문이다. 또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한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다. 어디를 가든지 주역이 되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여제자들을 찾을 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인 전도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요한이서 말씀 전체는 한 장이고, 전체가 13절로 짧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중요성구와 단어를 강해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성경본문을 보겠다.

1. 요한이서 1장 1절

1절에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라며 자신을 장로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한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전담하는 장로였고, 다른 장로는 교회와 전도자와 성도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와 봉사자, 전도를 함께하는 장로였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현장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은 다 불신자다.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기회를 열고 누가 제자인지 봐야 한다. 어떻게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전부 전도하려고 맛있는 걸 사왔다. 전도하려면 대상자와 항상 붙어 다녀야 한다. 한 사람을 제대로 교회화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계속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귀찮게 생각한다. 저는 학교에 가면 항상 전고1등, 반1등과 짝이었다. 전도하기 위해서였다. 사도 요한은 한 생명을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편지했다. 한 제자가 살면 그 현장이 살고 세계가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목사님과 소통하며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목사님이 ‘저 램뎃트가 살면 모든 현장과 세계를 살리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요한이서 1장 2-3절

2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구체적인 대상자들에게 절대미션을 주었다. 1절 중간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1)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녀’의 가정은 남편이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던 가난한 모자 가정이었다는 것 같다.

(2) 이 여인과 자녀는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다.

(3) 사랑의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

미암음으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원에 대해 참 복음을 통해 우러난 참사랑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장에는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되려 제게 거듭나셨냐고 물어보더라. 저를 전도하려고 했다. 예수를 믿는 분이였다. 저는 그분이 예수 때문에 예뻐 보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인간은 약점과 부족한 점이 다 있다. 내 생명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도 돕고 가정도 돕는다. 한 생명 때문이다.

3. 요한이서 1장 4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부녀의 자녀들은 램넌트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4절을 보겠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후대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기쁜 게 없다. 다른 건 지나가는 것들이다.

4. 요한이서 1장 5-6절

그런데 이 ‘부녀’는 자신의 영적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부녀가 다른 건 다 잘하는 정말 사망자인데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 서로 사랑하자고 한다.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자고 한다.

5. 요한이서 1장 7-8절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있고 복음과 진도를 막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이단들에는 제칠일안식교, 여호와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이 있다. 또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서도 잘못된 방향,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오히려 진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6. 요한이서 1장 9절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도 알 수 있다. 그게 절대기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들을 모시느니라” 1장 9절의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무엇일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원죄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절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7. 요한이서 1장 10-11절

1장 10절에서 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지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여러분이 이단과 말다툼해서는 이길 수 없다. 저는 수없이 여호와증인, 신천지와 토론해봤는데 그들은 영이 다른 것 같다. 은혜 없으면 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라합같이 현장에서 제자를 찾

아 300명접하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한다. 말다툼으로는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 혼돈, 흑암, 공허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전도 못하고 인생 끝난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고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제가 매일 구원의 길 그리시라고 할까. 묵상하고 결론 내셔서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8. 요한이서 1장 12절

12절을 보면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다락방과 탐사역이다. 편지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나 직장이나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다락방이고 탐사역이다. 이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미션홈이고 지교회이다. 예상하건데 분명히 나중에는 이 부녀와 자녀들은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237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사망자들의 가정에 이러한 지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절대목표이다.

9. 요한이서 1장 13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택함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라고 했다. 조카를 말한 것이다. 부녀가 복음을 친인척 조카까지 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카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는 말이다. 사도 요한과 함께하면서 전도, 선교 훈련 받고 있다는 말이다. 조카를 사망자 만들고 훈련현장으로 보내서 세계복음화하는 요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진짜 복음이 들어간 램넌트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시험 들지 않는다. 어른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나라에 미래가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어느 한 부녀에게도 이 편지를 썼다. 가정과 후대를 살려야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이런 사망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위한 9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이것은 신앙과 인간관계, 전문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점이다.

① 첫 번째 3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다. 하나님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후대들은 더 높은 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은 융합시대다. 그 넓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도 항상 이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지식에 대한 높이, 깊이, 넓이를 알아야 정복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3가지 포인트는 위, 아래, 옆이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상사들, 윗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포인트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이고 태도이다. 주변 사람과 아랫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는 빛이다. 전체를 다 보는 것이다. 모두의 입장을 다 배려하는 것이다.

③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다. 이것은 역사와 시간표에 대한 소통이다. 역사와 교회사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사도 알아야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다. 9가지 포인트를 나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로마서 16장 제자와 같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성경적인 5가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소중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도 많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